

소견으로 수술 후 병리조직학적으로 새성낭종으로 진단된 28례를 대상으로 임상적 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비는 총 28례중 남자 15례, 여자 13례였고, 연령분포는 10대에서 30대까지가 21례로(75%) 가장 많았다.

2) 주 증상으로는 경부종물 11례, 종물크기증가가 11례로 가장 많았으며, 증상발현 후 내원까지의 기간은 20일에서 30년까지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비압통성(75.1%), 유동성(78.6%), 표면이 평활한(85.7%) 종괴로 나타났다.

3) 발생부위는 경부전삼각부가 13례로 가장 많았으며, 28례중 흉쇄유돌근 상 1/3부위가 23례(82.1%)로 가장 많았고, 중 1/3부위가 2례, 하1/3부위가 3례였다.

4) 새성낭종의 Baily 분류상 제 II형이 20례(71.4%)로 가장 많았고, 제 I형 7례(25%), 제 III형 1례(3.6%)의 순이었다.

5) 새루가 동반된 경우는 총 20례중 총 6례였고 형태상 완전새루 1례, 불완전새루가 5례였으며, Work 및 Baily cleft sinus tract 분류상 제 I형이 1례, 제 II형이 4례, 제 III형이 1례였고 발생부위는 흉쇄유돌근 하 1/3부위가 3례, 중 1/3부위가 1례, 상1/3부위가 1례, 외이도 하후벽 1례로 하부에 많았다.

6) 수술전 임상적 진단으로는 새성낭종으로 진단된 8례(28.6%)가 가장 많았고, 결핵선 임파선염이 6례(21.4%), 갑상선결핵 2례, 낭성히그르마 2례 순이었다.

7)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낭종내벽이 증충편평상피로 구성된 경우가 22례(78.6%), 혼합형 4례(14.3%), 상피가 없는 경우가 2례있었다.

### 3

#### 갑상선 종괴의 전산화단층촬영 소견 : 양성과 악성의 비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정유미\* · 최우석 · 오주형

목적 : 갑상선 질환은 여러가지 진단 방법에

의해 진단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해상능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양성 및 악성 질환을 감별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전산화단층촬영(이하 CT)을 통한 연구는 드물어, 저자들은 CT를 이용하여 양성 및 악성 갑상선 질환의 감별진단에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갑상선 종괴를 주소로 CT를 시행한 후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학적 소견과 CT 소견을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여자가 14명 남자는 1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21~68세(평균 52세)였다. 조직학적 진단 상으로 follicular variant 1예를 포함한 유두암 9예, 여포선종 2예, 결절성 비후 4예가 포함되었다. 사용된 CT는 GE 9800Quick과 Toshiba 900S 기종이었고, 절편은 5mm로 하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조영증강 후의 영상만을 얻었다. CT 소견은 피막 형성 및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 유무와 관련된 종양의 경계, 고형병변의 양상, 낭성 변화 및 석회화의 유무, 임파절 전이 유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악성 종양(n=9)은 엽상 형태를 보이면서 부분적으로만 피막에 의해 둘러싸여있었고(n=7), 종괴의 고형 병변이 불균질한 저밀도로 나타났다(n=7), 불규칙하게 경계지워지는 낭성 변화를 보였다(n=5). 양성 종양(n=6)은 조영증강이 잘 되는 피막에 의해 싸여있고(n=5), 고형병변이 비교적 균일하게 조영증강되었으며(n=6), 낭성 변화의 경계가 매끈하였다(n=5). 석회화와 고형 병변 내의 격막형성은 악성종양과(7/9) 양성종양(5/6)에서 공히 관찰되므로 감별에 도움이 이 되지 않았다.

결 론 : 종양이 피막에 완전히 둘러싸여있지 않고 엽상 형태를 취하며, 고형병변이 불균질한 저 밀도로 나타나고, 불규칙한 경계를 갖는 낭성 변화 등의 소견은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서, 이는 양성 종양과의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4

#### 1기 성문암 57례의 임상적 고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이승호\*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성문암은 후두암중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으며, 병기 T1의 경우 방사선 혹은 수술적 치료로 예후가 좋은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1989년 1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1기 성문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한 후, 1년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 5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하였다.

남자 55례, 여자 2례로 총 57례였으며, 평균연령은 53.6세이었다. 병리소견은 암육종 2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편평세포암종이었으며, 고분화암종이 24례, 중등도분화암종이 25례, 저분화암종이 6례이었다. 초기치료로 32례에서 방사선치료, 25례에서 수술적치료를 시행하였고, 재발율은 각각 31.3% (10/32), 8.0% (2/25)이었다. 치료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평균 9.2개월로, 재발례 전례에서 원발부 재발이 있었으며, 1례에서 경부재발이, 1례에서는 경부재발과 원격전이가 동반되었다. 구제수술을 포함한 3년 생존율은 96.5%이었다.

5

후두 악성임파종  
(Malignant Lymphoma of Larynx)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조정일 · 김광문 · 김영호 · 최재진

두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임파종은 임파절이나 구개편도를 포함한 Waldeyer's ring에 호발한다. 그외 구강, 부비강 및 비강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비임파조직인 후두에 원발한 악성임파종은 악성후두종양의 1% 이하인 매우 드문 질환으로 전세계적으로 90여례가 보고되었고 국내에서는 2례가 보고되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이종양은 성문부나 성문하부보다는 후두개나 피열후두개추벽과 같은 성문상부에서 호발하며 특징적으로 궤양이 동반하지않는 점막하종괴의 양상을 띠는데 조직검사상 거의가 non-Hodgkin's 임파종의 소견을 보인다.

후두임파종은 비교적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많지만 치료전에 정확한 임상적, 조직학적인 병기의 결정이 필수적이다. 초기병기의 경우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비교적 치료가 잘되나 방사선 치료에 반응이 없고 후두내 국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술적제거가 권장되기도한다. 그러나 수술자체가 근치요법이 될 수 없어 술후 후두 및 경부에 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사선 치료가 일차적인 치료법으로 적용되는 경향이다. 진행된 경우의 임파종은 항암요법 단독 혹은 방사선 치료와의 병용요법이 필요하고 이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성문부 2례, 성문상부 2례의 후두 악성임파종을 경험하여 병기 IIE, high grade의 경우에는 항암요법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3례는 병기 I로 판명되어 방사선 치료하였기에 그 치험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6

두경부 악성 임파종의 임상적 특징 및  
치료 성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이비인후과\*  
한지연 · 김훈교 · 홍영선 · 이경식  
김동집 · 박영학\* · 김민식\*  
조 승 호\* · 서 병 도\*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강남 성모 병원에서 처음 진단 받고, 치료받았던 두경부 악성 임파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징 및 치료 성적을 분석하였다.

환자수는 총 20명이었고, 남자 12명, 여자 8명이었으며, 나이는 25~77세였다.

원발병소는 편도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인강 4명, 설저부 2명, 경부 임파선 2명, 두개골내 병변 2명, 그리고 누액선과 타액선이 각각 1예씩이었으며, 임상적 병기는 1기가 9예, 2기가 11명이었고, 조직학적 분류는 diffuse large cell 형이 7예로 가장 많았다. 치료로 항암화학 단독요법이 12예에서, 방사선 단독 요법이 5예에서, 그리고 방사선 항암 화학 병행 요법이 3예에서 실시되었다. 첫번째 치료에 완전 반응을 보인 경우가 14예(70%)였고,